

## 충남인터뷰 - 충남도의회

도민의 행복만 생각하며 의정 펼쳐나가겠다!



백 낙 구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약력 : 방통대 행정학과 졸업, 보령시 부시장, 부여군청 부군수, 충남도의회 의사당당장 역임, 제18대 대통령선거(새)대책본부장, 제8대 충남도회의의원, (현)제10대 충남도회의의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전에 의사당당장, 수석전문위원 등 서기관까지 공무원생활을 해왔다. 도 집행부나 의회에서 잔뼈가 굵았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펼쳐보고자 들어서게 됐다. 처음엔 몰랐지만 꽤 매력있는 일이다. 물론 정치적 신념과 공익의 가치를 제대로 잡고 간다면 말이다.

###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의 의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도정의 기획·재정 및 예산, 조직과 인사·감사·교육·홍보 등 도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 의정활동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얼마 전 보령시민 중의 한분이 토지 경지정리 관련 불법 건축문제로 1년에 3천만원 이상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선례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통보한거다. 결국 내 귀에까지 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까지 가서 살펴보니 애초부터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를 못해준 원인도 있었고 연세 많은 노인어른이 잘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도 있었다. 비록 생면부지의 시민이었지만 결국 보령시와 협의를 거쳐 잘 되는 방향으로 고쳐나갔던 적이 있다.

공무원은 도·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공무원이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시민과 거리를 두면 그 시민은 죽으라는 거냐? 도·시민이 있어야 공무원이 있는 거 아닌가!

### ▲ 보령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복안은?



우선 관광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먹거리·볼거리·놀거리를 해수욕장에 만들어 줘야 한다. 물론 보령머드축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고는 하나 이 하나만으로는 이 끌어갈 수 없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즐길거리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요즘 같은 충남이지만 태안이나 안면도의 유명세가 무서울 정도다. 접근성이 좋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와 원산도나 안면도로 가서 쉬려고 하지 대천까지 오려고 안 할까. 앞으로 연륙교가 개설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 ▲ 보령의 항만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항을 만들어 놓아야 물동량이 생기는데 물동량이 있어야 항을

만들 수 있다는 시선의 차이다. 우선 시급한 건 홍보지구가 막혀있다는 거다. 밀물과 썰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퇴적층만 쌓여 준설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 거다. 보령신항 개발의 필요성은 점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리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항이 아니라면 다목적항으로 계획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의 고속화도 필요한데, 결국 이는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령의 남북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청취해서 살아있는 연구성과를 만드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의원들은 해당 시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시군과의 밀접한 협력을 충남연에 요구하고 싶다. 물론 해당 시군의 단체장의 역량이나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협력이 잘 되기도 하고 갈등 양상을 띠기도 하지만 결국은 도민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 ▲ 끝으로 향후 계획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임기가 2년인데 이제 4개월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우리 도청 집행부 공무원들의 선배로써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시켜주고 싶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책임의식을 갖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시군 행정감사를 없앴다. 23년만이다. 도의원들의 전문성이 공무원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결국 견제와 감시라는 명분도 좋지만 효율성을 중시하자는 취지가 높다. 그렇다고 시군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행정감사 준비할 시간에 도민을 위한 행정 하나라도 더 펼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앞으로 충남도의회 제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한편, 4년 동안 보령출신 도의원으로서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그리고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이인희 연구위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아산시민이 위임한 브레이크 페달! 충남도민 위해 쓰겠다

약력 : 순천향대 졸업, 선문대 사회복  
지학과 석사 졸업,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자유선진당 충남도  
당 대변인, 성웅이순신출제위  
원회 사무총괄위원, 충남학교  
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역  
임, 제9대 충남도의회의원(문  
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재  
10대 충남도의회의원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기 승 |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 ▲ 정치 입문 배경은?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당 사무처 조직부장, 사무국장, 국회보좌관 등으로 약 25년을 보내며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다.

지난 2010년도에 충남도의회원으로 출마했고 올해 재선되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뽑아주신 아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초선에는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았고, 지금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 ▲ 지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직이나 인력 등이 문제가 많았다. 결국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도록 유도해 충남청소년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토록 한 것이 일단 기억에 남는다.

사실 알다시피 청소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누구나 그 성장의 고통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어른이 되는 거 같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싸우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



서 컸다. 이게 핵가족화되고 자식들 과잉보호 때문인지.. 아이들에게 너무 간섭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소통하고 자신감있게 커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어른들이 좀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할 때다.

#### ▲ 충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라는 게 참 어렵다. 어느 한쪽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만 흐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예결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은 건 사실이다. 충남도 예산 중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40%가 안 된다. 복지정책 확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세금은 제대로 내야 한다는 국민의식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빚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지속성도 없고 나눠주기 식이 아니냐는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다. 특히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수립과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안전 부문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안전진단을 비롯한 실천계획에 따라 철저히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번 예산 심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 ▲ 아산시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방안은?

먼저 아산시는 2016년 전국체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전국체전은 행사 그 이상의 지역사회발전



의 한 축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걸 보면 좀 아쉽다. 예산확보가 급선무인데, 지난 추경에 30억 원을 도비로 마련했고 2015년 예산에도 약 200억 원을 더 준비해야만 하는데, 잘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무엇보다 아산시로 바뀐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온양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아산시를 온 국민들에게 알리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산 소방서 신축문제가 남아 있다. 지금의 아산 소방서는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소방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건축비가 없다. 약 8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16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쉬울 따름이다.

#### ▲ 아산지역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총생산, 기업소득 등은 전국 최고수준이지만, 소득의 역외유출, 대중소기업의 상생관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결론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에 있다. 일례로 현대가 아산에 온지 2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차선 도로로 출퇴근은 물론 운송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다.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는가.

또한 아산은 젊은 층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프라가 반겨주질 않아서 인근 천안 등지로 옮겨간다. 아산지역에 양질의 학교 건립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삼성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일부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중고가 부족한 상태다.

교육과 교통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제는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 물적, 인적 자원들의 교류가 아닌 유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정주 체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관련 부서와의 협력은 물론 정책을 위한 연구성과라면 제대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 우리 도의원들은 투표를 통해 브레이크 페달을 잘 밟아달라는 위임권을 받은 것이다. 집행부의 가속 페달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쓴소리를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에 '왜 브레이크를 거느냐'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 잘 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잘 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힘 써 달라.

대답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충남도민을 위한 정치, 아니 대변인의 소임 다 하겠다.

약력 : 광운대학교 졸업,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졸업, 청가든 식품 대표, 충남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장 제3, 5, 6, 8대 천안시의회 의원 역임,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김 동 욱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 정치 입문 배경은?

나이 40대 초반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선배님들이 한번 시민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없느냐는 권유로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정치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한 마디로 시민의 대변인?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이것이 제가 풀어나가야 할 소임이라 생각한다.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천안시청 이전단계에서 나뉘대로 도서 지역 간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시청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있겠는가. 지난 시의원 3선을 통해 천안시 발전에 일조했다면 이제는 충남도민을 위한 봉사로 키워가고 싶다.

### ▲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사실 행정자치위원회의에 자원했다. 초선이기도 하지만 도정 전반을 파악하고 싶은 욕심에서 결정했다.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도민들에게 쓰일 예산의 효율성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도정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 천안시의 지역현안이 있다면?

천안은 아시다시피 급속한 발전으로 곧 인구 60만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가 커지는 건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사실 농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타지인들의 유입도 많다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로망이라던지 교육문화예술분야 등은 아직도 취약하다고 본다.

이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신경써야 할 때다. 특히 구도시와 신도시를 갈라놓고 있는 철도문제가 크다. 지역내에서조차 격차가 심해지는 건 있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 젊은 층의 활력이 필요하다. 문화와 예술이 하나되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싶다. 그 중심에 젊은 학생이나 관련 단체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해내야 할 것이다. 삭막한 회색빛 천안의 이미지는 아니라고 본다. 성장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고, 그와 어울려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

### ▲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향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특색이다. 지리적인 여건, 서해안 시대, 도민의 착한 심성 말이다. 이런 부분을 살려서 타 시·도와 다른 특색있는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전문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연구가 잘 되어도 이를 집행할 공무원의 마인드가 부족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예의주시하며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함께 할 것이다.

### ▲ 고교평준화에 대한 생각은?

사실 천안은 평준화가 되어 있다가 95년에 비평준화가 되었다. 평준화시절에 천안의 교육은 너무 침체되어 있었다. 지역에서 나뉘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외지로 학교를 보내는거다. 그러다 보니 천안의 교육은 더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비평준화로 다시 돌아온 지 이제 20년이 되어간다. 평준화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제 천안시 교육의 안정화와 신뢰가 다져지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므로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취지다. 평준화를 한다 해도 학생 간 교육수준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평준화의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더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연구원에서 보내주는 충남리포트 잘보고 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에 감사하다.

다만, 정책으로의 활용과 연결이 중요하다. 연구원이 노력해서 만든 연구성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도나 시·군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김형철 초빙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충남의 백년지대계, 청소년 교육만큼은 내가 챙긴다!

약력 : 미국 로올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강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졸업, 성균관대 행정학박사과정 수료, 민주당 아산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 역임 (현)라인갤러리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및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윤 지 상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결혼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 아내와 함께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서강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민주당에 있던 지인들이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하였고, 특히 평소 많은 고민을 하던 교육과 문화발전 분야에 기반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실천할 수 있겠다 싶어서 뛰어들게 되었다.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아직 초선이라서 많은 일을 수행하진 못했지만 최근 도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갈등관리 전담부서인 갈등관리팀을 만들게 한 것이 있다. 행자위 위원들이 공동으로 힘을 실어준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의 역할이 있다면?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행정학을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다녔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많은 힘이 되고 있다. 도정의 중요한 부분인 예산, 정책, 인사 등의 큰 그림을 조정하는 곳이 바로 행자위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 아산이 달라졌으면 하는 점은?



개인적으로 볼 때 중요한 도시경쟁력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세종시나 내포신도시 공무원이 자녀교육 때문에 선뜻 이사를 못하는 거 아니겠나. 아산은 인구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은 구축되어 있지만, 교육·문화·복지 등은 아직 미흡하다.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만들어낸 공약이 바로 영어도서관 설립, 아파트나 지역내 작은 도서관들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지역 자체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일정부분 절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 아산시 기업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바로 로컬푸드다. 아산에 위치한 삼성이나 현대에 가보면 한 끼에 15000명 이상이 식사를 한다. 물론 이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지역의

많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이다. 비단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충남 전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 실천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길 바란다. 물론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 좀 더 도서관 지원사업이나 인적 교류,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등에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아 직접 토론회도 개최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안전하게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열었던 토론회에서는 3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도 모셔서 아산시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착 우리 청소년의 목소리에는 무관심한 게 어른들이다.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의견을 듣고, 아산시나 충남도에서도 좋은 의견은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행사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산시에 제안도 할 것이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책이라는 게 사실 실효성과 현실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지역만의 참신하고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타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잘 키워주신 도의원, 충남도민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약력 : 천안중앙고,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국회 입법정책 보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회원, 충남보육정책심의회위원회 및 충남보건의료심의회위원회 위원, 제9대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10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등



유 병 국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1998년도에 양승조 의원님을 법률사무소에서 만나 같이 일을 했는데, 양승조 의원님이 2004년도에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 나는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지역주민들의 성원 덕분에 당선되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은 소망이 컸다.

###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내가 당선되자마자 발의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 조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천안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꽃밭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꽃도 기르고 화분도 만들어서 팔고 있었지만, 잘 만들어도 안 팔리고 장애인이 만들었다는 편견 때문인지 판매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를 계기로 이번 조례가 생기고 난 후 실제로 매출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났다고 하더라. 이 조례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낀 경우였다. 소위 '잘 만든 조례 하나, 온 국민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우리 도내에 장애인이 20만 명이 있는데 어찌보면 20만 명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더구나 이 당시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해서 더 뿌듯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 ▲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계속 일을?



그렇다! 계속 할 것이다. 제가 9대 때도 저소득층임대보증금 지원조례와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조례도 발의했다. 그런데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자동 폐기됐다. 많이 아쉽다.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제도는 보증금을 도나 시가 매칭해서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대상자들은 관리비와 저금리 이자만 내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도시지역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며 반대하더라. 그런데 최근 천안시에서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이번 천안시장 공약이 영세민주택 2000호 공급인데, 그 중에 200호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이처럼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해 주면 훨씬 수월하게 추진될 텐데... 아쉬울 따름이다. 희망카페도 잘되고 있다. 천안의 한 기업이 사내에 희망카페를 오픈했던 게 시발점이었다. 현재는 도청이나 관공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으로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의원활동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얼마 전에 캐나다, 미국에 견학을 다녀왔다. 그 지역 부시장님이 지역 대학교수시더라. 부시장은 봉사직이고 월급은 대학에서 받고, 소위 지역 도의원들도 다 따로 직업이 있었다. 초등학교교장, 의용소방관 등 아주 다양했다. 그들의 보좌관은 하루종일 민원 처리와 서류검토를, 도의원은 정책제안에 몰두한다는 것이다. 우린 도의원이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일례로 감사기간에는 여러 기관들의 감사자료가 한 박스씩 오는데, 언제 이걸 보고 언제 질문서 쓰고 하느냐? 한계는 분명히 있다.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이걸로도 확실하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게 될 보좌관제도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 천안시 지역 현안은?

천안은 경부선철도를 기준으로 원도심 지역인 동부권과 신흥주택지인 서부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두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등 교통문제도 심각하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천안의 교육열이 너무 높아 사교육비도 많이 든다. 이번에 고교평준화를 하게 되면 일부 해결되는 문제인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

#### ▲ 특히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교통부문은 도로와 철도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도로부문에 있어서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건설의 단·장기적 계획 및 추진 전략이 필요하고,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연계교통망 체계 정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로 철도부문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 구간 지하화, 청주역 신설 천안역사의 정식화(현재 가설 역사임)가 필요하고,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로와 철도의 타당성 분석에 반드시 이용되는 교통수요분석 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이하 KTDB)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천안시 인구가 현재 60만 정도이며 지속적으로 증가(연평균 2.9%)하고 있는 추세이나 KTDB에서 현실과 다르게 반영되어 장래 통행량이 과소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KTDB가 수정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잘하고 있다. 다만 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술연구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의성있는 정책연구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도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사업들도 필요하다. 마침 2015년이 20주년이라고 하니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연구원이 되길 바란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김원철 선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신념과 열정으로 도민에게 봉사하겠다!

약력 : 천안공업고등학교,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수료, 해병대 전우회 아산지회 제7대 회장, 제8대-제9대 충남도의회 의원 역임, (현)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의장, 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이 기 철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지금도 잊지 않는 1991년 3월 2일! 온양온천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등교지도를 시작한 날이다. 2005년도까지 계속 하게 될 줄은 몰랐다(웃음).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그런 열정과 신념으로 정치를 한다면 더 큰 봉사가 될 것이라는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다. 변함없는 열정과 흔들림 없는 모습을 시민들이 좋게 봐주셨던 모양이다.

####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은?



첫 번째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됐던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에 우리 아산이 빠져 있었던 것을 포함시킨거다. 그러나 아산지역은 예로부터 우마차와 조운선 등으로 한양으로 양곡을 실어 나르던 중간 기착지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지역이었다. 아산을 내포문화권종합개발사업권에서 뺀다면 내포 몸통을 빼고 팔다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1890년에 당시 공세리 지역은 프랑스 신부가 내륙지역 처음으로 부임해 선교활동을 시작한 공세리성당이 있다. 최근 교황 방문 등으로 더 관심이 높아져서 지금도 성지순례로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0년도에 안 지사에게 건의해 포함시키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아산에



있는 둔포고등학교 이야기다. 저기 변두리에 위치한 이 둔포고는 인문계고등학교였지만 폐교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다가 고민하던 중에 우리 아산에는 삼성, 현대 등 첨단기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취업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고용할당제'를 해 달라는 주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의견을 종합해 지난 5년 동안 힘들게 노력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게 되었고 바로 둔포전자기계고등학교라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된 것이다. 지역의 현실에 부합한 교육을 통해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즉 아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

####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계획이 있다면?

행자위는 도민생활의 전반을 아우르고 챙길 수 있는 위원회라 생각한다. 도 기획관리실이 행자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의 행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맞물려 열심히 노력하겠다.

#### ▲ 아산지역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는?

아산의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50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30만대만 생산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최소한 50만대 이상을 생



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타 지역에서는 자동차공장 유치를 위해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보라. 부지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또 한 가지는 현충사에 있다. 영화 '명량'이라고 하는 대단한 호재가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놓쳐버렸다고 봐야 한다. 현충사를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없다는 거다. 더구나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의 크기도 실물크기와는 다르다. 즉 임진왜란 테마파크가 아산시에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현충사와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실물크기의 거북선에도 타고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투구도 써보고 칼도 휘둘러보고 활도 쏘아보고 말도 타고보고 말이다. 또 군사들이 먹던 주먹밥 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열어 임진왜란 체험도 하게끔 한다면 수도권을 비롯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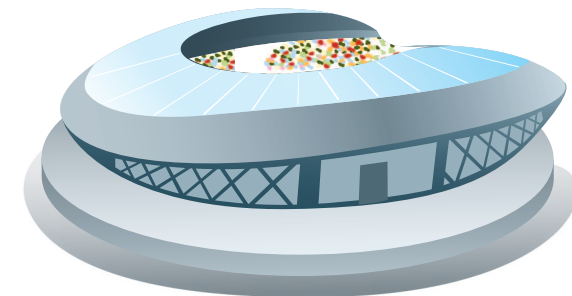
#### ▲ 2016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교통상황으로는 어렵다. 천안-아산 간 국도 21호가 천안쪽에선 8차선으로 출발한다. 그런데 외곽도로와 갈라지는 구간에서는 아산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이다. 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배방에서 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2016년 전국체전에 충청남도 계획에 의하면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다고는 하고, 국민적 관심은 폭발할 것이 예상되면서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현재 계획으로는 혼잡한 교통상황을 쉽사리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전국체전을 치룰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충남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칭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한 마디를 건넨다면.. 충남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물론 뜬구름 잡는 연구 말고 현실성 있는 미래전략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노력해줬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도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머슴역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력 :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신성대학 행정실무과 졸업, 부성테크오션사장, 충남발전협회의 부회장, (현)대전지방 당진 법원 민사조정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이 용 호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믿음직한 정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모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어주는 정치를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풍토 조성은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저는 지역의 새롭고 참신한 일꾼, 그리고 정치권의 실천의지와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정치 소견이다. 한국의 정치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송곳 끝부터 바로잡는데 앞장서고자 지방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초년생이다.(웃음) 도의회 의정활동 5개월인 풋내기로서 기억에 남을 뚜렷한 활동은 아직 없다. 그렇지만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이며, 후회 없이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음 인터뷰에는 이 부분을 가장 길게 말할 수 있게 하겠다.

### ▲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은?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의원은 풍부한 행정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을 알아야 행정을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꼼꼼히 챙겨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선의원이지만, 39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동료의원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역동적인 충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반 행정 방향과 틀을 점검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믿음을 살 수 있는 머슴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개발과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 때 문인지 행정, 교육, 치안, 문화,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조화로운 성장과 균형적인 발전에 많은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결과에 불복하고 2010년 평택시가 요청한 당진-평택항 간 매립지 관할 분쟁,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개설을 비롯하여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 그리고 삼교호 수질개선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중점적인 활동은?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시민과 행정 이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이다.

당진-평택항간 매립지 관할 분쟁을 예로 들자면, 경기도와 평택시에서는 도·시·도민들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 충남도는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충남과 경기도간의 해상도계 분쟁인 만큼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개설 사업은 충남도의 항만발전은 물론 매립지 관할 분쟁의 조속한 종식을 위한 선점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당진시와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삼교호의 맑은 물 되살리기 사업은 당진시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역 기초단체가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한 호수로 되살릴 수 있도록 충남도가 주축이 되어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 ▲ 당진시는 사실 농업기반이기도 한데?

그렇다. 농촌과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현재 당진시는 전국 최고의 쌀 생산지이며, 농업은 당진시의 기간산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농업·농촌·농민은 지역에서 외면 받는 천덕꾸러기가 절대 아니다. 농업과 공업이 병존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천혜의 해안 항만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지역 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을 통하여 충남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당진으로 성장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명칭 그대로 우리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는 종합연구기관이다. 우수한 인력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어려움 없이 모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 환경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친 간섭이나 행정 낭비로 연구에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되는 거다.

아울러 충남도의 정책협력체계의 강화,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충남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본 연구원을 활용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말 그대로 열린 연구원의 지향점은 칭찬하고 싶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이수철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충남도민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생활정치의 모범이 되겠다.

약력 : 공주대 행정학과 졸업,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졸업 공주시의 회3대 5대의원, 제9대 충남도 의회의원, 예결위원장, (현)제 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조길행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시의회에서 8년간의 의정생활과 30여년의 새마을 운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왔다. 미래의 공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충남도와 공주시의 가교 역할을 통한 생활정치를 직접 실천하고 싶었다.

### ▲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재선 의원이다. 시의회까지 합하면 13년째 의정활동을 한다. 지난 9대 후반기에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고, 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후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농촌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어떻게든 세종시와 차별화된 정책, 그리고 농촌 문제의 대안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굳이 하나하나 언급할 일은 아니다.(하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은 많지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일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하나 둘씩 들어주고, 새로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들과 함께 웃을 때가 가장 즐겁다.



### ▲ 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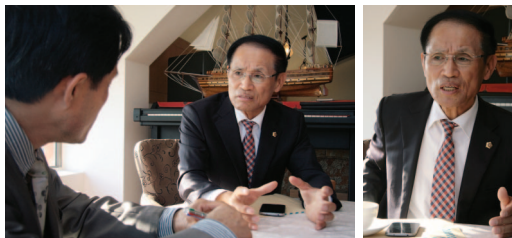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40명 의원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특히 상임위 간 의견조율 등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행정자치위원으로 생활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는데 노력하겠다.



### ▲ 공주시의 가장 큰 현안은?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KTX 호남선 공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크다. 논산시와의 접경지역이자 30km 이내에 청양과 부여 등이 인접해 있어 남부 내륙지역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 도로망 등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다. 또한 세종시 출범과 함께 공주시 인구감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에 사는 분들의 절망과 불신을 녹여내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 지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다. 우리의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점적인 활동은?



우리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근본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별 농촌 특화사업 발전, 유통체계개선, 6차산업화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세종시 출범으로 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구와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래도 동반성장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마인드는 긍정적이다.

### ▲ 공주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공주시는 2015년도에 외부적으로는 세종시 인근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과 정부의 내부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점과 기회로,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문제와 복지정책 확대와 내수 위축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를 약점과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내부적으로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도시재생 추진 등 지역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과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관광경쟁력 강화를 기회와 강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상존과 복지정책 및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증대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들이 상존되고 있다. 공주시는 이런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해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 미래비전의 공유, 재정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행복 프로그램 발굴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교육도시로서의 품격을 한층 높여가야 할 것이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충남도의 정책개발과 도민의 생활정치가 결합된 현장 밀착형 연구가 중요하다. 또한 각 시·군 정책대안(이슈)의 구심점 역할 등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연구실장/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 계룡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실천활동의 모범이 되겠다

약력 :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계룡시 체육회 이사, 계룡군 문화발전재단 이사, 제8대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9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충청권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



조 치 연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 정치 입문 배경은?

계룡시가 2003년 9월에 출범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 주변 사람들이 출마해보면 어떨까... 하며 권유를 했다. 그 당시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개인적으로 건설업에 몸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 이렇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건가?' 싶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던 시민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 ▲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일은?

계룡시에는 소방서가 없다. 119센터만 있다. 2006년 당시 10층 이상 아파트가 136동, 5층 이상이 68동이였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충남도에 고가사다리차가 총 5개밖에 없을 때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예산을 수립해 구입한 것이 기억난다.

나는 도의원이기 이전에 토목기술자이기도 하다. 계룡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SOC사업들을 보면 예상보다 많이 지출되는 사업들이 있더라. 또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기계기사, 방화관리 등 총 6개 자격증을 갖고 있다 보니 이 계룡의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다. 특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관련 민원들을 해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



### ▲ 행자위 위원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처음 4년간은 건설·소방을, 다음 4년은 문화·복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무엇보다 예산 심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선별해내는 것인데, 의원들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면 아는 만큼 보이니까.

지금 한창 예산 심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게 많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제대로 된 곳에 제 때 쓰여지길 바라는 맘이다.

### ▲ 계룡시에 가장 큰 현안은?

현재 계룡시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다. 아시다시피 계룡시는 군인과 그 가족이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신관면의 경우는 아예 민간인이 없다.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번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유치가 좀 더 활발히 되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바로 소방서 문제다. 사실 소방서 하나 들어오기 쉽지 않다. 지난 2011년도에 119센터를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계룡시는 소방서를 유치하면 되니 119센터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소방서를 운영하려면 그 부지를 도와 시가 제공해줘야 한다. 건축비, 부지매입, 소방장비, 소방인력 등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건물비만 해도 150억 이상이 든다. 심지어 의용소방대 수당도 도에서 준다. 예산 사정 등을 봤을 때 그 당시 119센터를 엄사면에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얼마 전 119센터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말이다. 생각의 발상이 참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여진다.

그걸 아시는가? 지금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과 계룡시에만 소방서가 없다. 이번에 청양은 소방서 부지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근데 계룡시는 부지도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향



적산을 종교단체가 매입한다는 설이 있었다. 이곳은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특정 종교 단체에 매각을 함으로써 등산로 출입을 막아도 되겠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 이걸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어서 매입하고 여기에 계룡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을 지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향적산은 도나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 일괄 매입을 못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입이라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길 바라고, 그 가운데 나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 ▲ 충남발전연구원에 당부하고 싶은말은?

충남발전연구원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실림을 하느라 고생하는 걸 안다. 대체로 충남발전은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고 최근 계룡시와 공동 세미나도 개최하는 등 협력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각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양이자 유산이기 때문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닌 지난 것들을 잘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바로 현재의 사명이 아닐까 한다.

대담 :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책임연구원  
사진 및 정리 : 충남발전연구원 정봉희 홍보팀장

